

제2과 하나님, 탕자 유다를 고발하다.

이사야 1:1-31

이사야1:2-5:30은 이사야가 하늘보좌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으면서 디글랏빌레셀 3세(주전743-726)가 이끄는 앗수르 군에 의해 침략당하는 유다의 상황에 대해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1:2-5:30 이사야가 하늘보좌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1:2-31	탕자 유다가 범하고 있는 패역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
2:1-4:6	유다 심판 후 남은 자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 계시
5:1-30	포도원 비유를 통한 유다의 죄 고발

①. 이사야는 하나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가 하늘 법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법정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탕자 유다가 범하고 있는 패역 죄를 고발하신다.

1장 2절-4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패역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하는지 묵상해보자.

②. 유다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그를 양자로 삼고 친아들처럼 사랑하시는데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철저히 외면한다. 이에 하나님은 가축은 그 임자와 주인의 구유를 알고 본성적으로 주인을 따르지만, 유다는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하신다. 이에 하나님은 패역한 자식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기 위해 유다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때리신다. 그러나 유다는 어찌된 일인지 앗수르의 침략을 받아 유다가 땅과 성읍이 불타고 약탈당하는 심판의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 오지 않는다.

5절-9절을 읽고 새언약 백성인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패역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매질은 어떻게 나타나는 지 묵상해보자.

③.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맞은 결정적인 매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 패배한 것이다. 실제로 이사야 당시 유다는 앗수르의 침략을 받아 영토를 빼앗기고 조공을 바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고통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겨울에 황량하게 남아 있는 포도원의 망대에 비유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생존자를 남겨두셨다.

8절-9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패역한 탕자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 놓으신 이유에 대해 묵상해보자.(참고 6장13절)

④. 하나님의 극한 매를 맞으면서도 유다가 회개치 않고 패역을 일삼자 이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이 드리는 제사 일체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얼굴을 돌리시겠다고 하신다. 이는 일종의 절교선언이다.

10절-15절을 읽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기도와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신앙에 대해 묵상해보자.

⑤. 유다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번성함에 있었다. 이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창기의 성읍이 되었다고 하시며 탄식하신다.

21절과 다음 칼럼을 읽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예루살렘을 창기의 성읍이 되었다고 하시는 지 확인해보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는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주인과 종 등 다양하게 비유되나 언약관계 자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는 결혼관계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사 54:5)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뿔라’(히: 결혼한 여자), ‘하나님의 헵시바’(히: 나의 기쁨)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신혼이 지나가고 결혼관계는 파경에 이르렀다. 성경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파경을 맞은 결혼관계를 그린다. 부부였던 호세아와 고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관계를 상징한다.

호세아는 "구원자"를 뜻하며, 고멜은 "완성"을 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남편 되는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다. 그러나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남편들을 찾아 나서며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다. 고멜은 타락하여 팔려가고 호세아는 값을 주고 다시 건져낸다. 실로 음란한 호세아의 아내-고멜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구약성경에서 음란은 한 남편 하나님을 떠나 “그 무엇”을 즐거워하는 삶을 총칭한다. 이로써 언약관계는 파기되었고, 하나님과 결혼관계는 파국을 맞이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시고 화를 내리시는데 그 목적은 부부관계를 회복하는데 있다.

구약신학자인 마튼스(E. A. Martens)는 이스라엘이 언약관계를 깨뜨린 함정을 예리하게 통찰하였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한 것은 언약공식의 후반부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요구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전반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만을 맹신하였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오늘도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마땅한 책임인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안정과 축복을 맹신한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기만하고 기독교 신앙을 기만하는 신앙이다.

⑥.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편을 쫓는 창기 유다가 부정함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부정함을 제거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이상일 뿐 현실적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미 창기가 된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25절-27절을 읽고 창기가 된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에 대해 묵상해보자.

⑦. 하나님께서 유다의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 내리시는 심판은 앗수르를 들어 유다를 치시는 것이다.

28절-3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자 아내인 유다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리시는 심판의 가혹함에 대해 묵상해보자.

⑧.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시는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진멸이다. 진멸(히:헤렘)은 부정함을 제거하고 온전한 것을 세우기 위해 부수는 파괴행위를 말한다.

16절-19절과 27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유다의 부정함을 진멸 하시며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한 언약관계가 어떤 것인지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자.